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B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12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좋은 주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느라 지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더럽혀진 마음은 씻어주시고, 모질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만들어주십시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고 있던 위선의 탈은 벗겨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세상이 너무도 소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돈과 권세를 좇느라 분주합니다. 행여 의로운 사람들이 낙심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이 척박한 역사 속에 희망의 물줄기를 끌어들이려는 당신 백성들의 노력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요한10:9	인도자
----------------	--------------	-----

♠ 교 독 문	13. 시편34편	다함께
---------------	-----------------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	-----------------	-----

대표기도	I. 이명희 집사	II. 김재흥 목사
------------	-----------	------------

응답송	찬양대
-----------	-----

찬 송	73.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마6:19-24	인도자
------------	-------------------	-----

II. 시12:1-8	김 극 집사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재물 vs 하나님	이성운 전도사
-----------	--------------------	---------

II. 이제 일어나소서	김기석 목사
--------------------	--------

거듭기도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521. 어느 민족 누구거나 다함께
 헌금봉헌<연주: 홍지희>.....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거짓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구하기보다는, 참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 삶을 주님께 비끄러매는 끈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겠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희망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온 몸으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걸겠습니다. 은총의 바람을 타고 신명나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수련회 보고	말씀 : 장영숙 전도사
진행 : 김재흥 목사	기도 : 안정숙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최인환 전도사 김기석 목사	장성호 선생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김정길 권사

8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용진 홍순구 박효선 정경례 고숙이
	헌금위원	김철수 이인웅 김인걸 송양진 안정숙 허정윤

정상과 비정상 사이

우리 모두가 혹 장애인은 아닐까? 우리가 한 것처럼,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몇몇 결함들은 보다 더 쉽게 눈에 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즉, 그들의 두려움, 이기심, 굳어버린 마음, 자만심, 자기만족, 듣지 못함 등등. 그들은 눈이 있어도 타인들의 고통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을 듣지 못한다.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이들의 가슴을 사랑해 주지 못한다.

최근에, 나는 캐나다의 병원에 갔었던 적이 있다. 제일 첫 방에서, 나는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나를 쳐다보기에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더니, 그들은 희미하게 미소지었다. 나는 ‘만성적으로 병이 깊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내게 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는 로버트예요. 당신은 누구지요?” “나는 장이어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들과 얘기를 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다. 하지만 그들이 지내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아팠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상처받은 단순한 사람들에게 빠져들었다. 그들 가슴 밑바닥에 있는 엄청난 슬픔이 느껴져 왔다. 거기에 장벽은 없었다. 한 걸음 나아가, 그들은 부르심대로 살며 스스로를 내어줌으로써 내 가슴속에서 자라나던 벽을 허물어 주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고독은 나로 하여금 그들과 머물며 운명을 함께 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원천이 되게 하는 하나의 초대였다.

그 다음 그들을 떠나 ‘거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방들을 다시 지나갔다. 그들은 내게 창백한 미소를 던졌다. 마지막으로, 병원 담을 벗어나 ‘정상적인’ 세계로 갔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말도 걸지 않고 미소짓지도 않았다. 그 세계 속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함께 나누는 삶도 없었다. 오직 달리기만 하는 사람들! 바쁘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과 돈과 삶의 방식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형제들의 고통을 보고도 멈

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소위 ‘정상적’이라는 세계에서, 우리는 사람 자체보다 지위와 기능을 더 많이 본다. 이때 우리는 존재의 본질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행동하며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측정한다. 우리는 그것만을 볼뿐이다. 사람들은 ‘박사’, ‘이사’, ‘회장’ 등으로 불리운다. 대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외적이며, 심지어는 기능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지위나 기능과의 관계이다. 지위나 기능에는 가슴이 들어 있지 않다. 가슴을 지닌 것은 인격체뿐이다. 그 가슴은 자비와 친절과 귀기울임과 이해와 하나됨의 마음을 담고 있다.

(.....)

‘정상적인’ 세계의 문제는 두려움이다. 서로에 대해 우리는 그토록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만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 마구 두들겨 맞고 반죽음이 된 사람의 걸을 지나던 사제와 레위 사람의 비유는 펴 이해하기 쉽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그것은 우리들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부자는 종기 투성이의 몸으로 굶주려 죽어가던 나사로를 외면했다. 우리 역시 그 같은 사람을 외면한다. 보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교도소나 병원 등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격리시킨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쾌적한’ 곳의 문을 닫아걸어 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더 편해진다.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다. 비참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혹스런 일이다. 그러나 나사로는 우리 주변 어딘가에 항상 있다. 비록, 이제 다시 우리 집 대문간에는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요일3:17)

-장 바니에, <<두려움 너머로>> 중에서

당신 누구요

어느 구도자가 사막에 살고 있었다.

그가 거처하는 독방에서 20리나 떨어진 곳에 가야 물을 얻을 수가 있었다. 물 한번 길어 오자면 하루가 걸리는 그 길을, 어느 날은 거기까지 갈 힘이 없어서 중얼거렸다.

“왜 이런 피곤을 사서한담. 물이 있는 근처로 옮겨 살면 될 걸.”

그런데 그 말이 있는 후 고개를 돌려보니 누군가 따라오며 그의 걸음을 헤아리고 있었다.

“당신 누구요?” 하고 묻자,

“나는 주님의 천사요. 그대의 걸음 수를 헤아려 보고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라고 보냄을 받았대요.”

그 말에 새 힘을 얻은 구도자는 다시는 군말하지 않았고, 물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독방을 옮겼다고 한다.

주님의 은총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물에서 멀어진다는 뜻이 된다.

피곤한 거리는 성도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인내일 것이며, 물은 구도자를 나태하게 하는 욕망과 사물이리라.

모르긴 해도 죽을 등 살 등 후반기 인생을 살았던 바울의 신명은 자신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겁내지 말고 달려가자. 그리고 차츰 차츰 우물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거처를 옮기자. 그래야 맑은 영혼을 펴 올릴 수 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환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김용진 박효선 김준호 곽혜자 임승동 백혜숙
정완수 김재광 최종원 배삼순 김혜권 오자영 고광송 이춘희 최인환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정미경 박병구 황원순 황자순 전영자 우영규 유혜경
문홍일 김현영 정원석

감사헌금:

김기석 조항범 정복순 이봉옥 박창운 허정윤 박병구 백묘현 이응구
한선희 배근수 김금순 오진훈 노순옥 김중수 박혜경 박성면 문인옥
김세진 김루빈 한지혜 문홍일 이미혜 유경민 김지윤 무명2

생일감사헌금:

이상훈 김대근 권혁순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심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8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2. **수련회 보고** : 오늘 오후 집회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총결산하여 교우 여러분들께 보고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3. **연합속회** : 9월 1일(금)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가버나움 속 / 식사준비 - 에베소 속
4. **봉사** :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가 9월 1일 연합속회 후 실시됩니다.
5. **선교회장 간담회** : 9월 3일 오후 집회 후에 도서관에서 모입니다.
6. **목요성경학당** : 9월 14일부터 존 웨슬리 목사의 표준 설교를 읽어나갑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시오.
7. **신앙실천** :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느슨해진 신앙생활(집회 참석, 헌신, 성경 묵상, 기도, 봉사)을 일신하십시오.

* 식당 봉사 : 안디옥 속

* 헌화 : 김애경 권사 (남편 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